솔베이 실리카 새만금공장 준공식

연간 7만2000톤 생산… 생산유발 효과 1960억원, 수출·수입대체 효과 2040억원(2021년까지) 전망

세계 제일의 유럽 첨단화학기업인 솔베이 실리카 코리아㈜가 군산 새만금에 친환경 첨단화학소재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6만9,935㎡(약 2만1,000평)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건립한 솔베이 실리카 코리아는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주형환 산업자원부장관, 솔베이 클라마듀 회장, 앤 뉴턴즈 사장을 비롯해 아드리앙 테아트르 주한 벨기에 대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연간 7만2,000톤의 실리카를 생산할 계획인 솔베이는 지난해 4월부터 1,21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했다.

솔베이 공장의 연평균 생산유발 효과는 1,960억원,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는 2,040억원(2017~2021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솔베이가 생산하는 실리카는 화학제품의 소금이라 불릴 만큼 광범위하게 쓰이는 특수 화학소재다.

타이어 마모 저감은 물론, 치약·식품·의료 등에 강도와 흡착력을 높이는 소재 중 하나다.

중국(청도)과 우리나라(인천)에서 고분산 실리카를 생산하고, 프랑스(리옹)에서는 프리미엄실리카를 생산하고 있는 솔베이는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프랑스 리옹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더 좋은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솔베이 실리카 코리아는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주형환 산업자원부장관, 솔베이 클라마듀 회장, 앤 뉴턴즈 사장을 비롯해 아드리앙 테아트르 주한 벨기에 대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한편 솔베이그룹은 1863년에 설립해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 등 55개국에 111개의 생산 공장과 12개의 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부안군 1인당 진료비 전국 최고

연 232만원… 고창 222만원 전국 3위… 노인 비율과 연관

전국에서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안군으로 조사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5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월평균 진료비 기준 상위 5개 지역은 부안에 이어 전남 고흥, 고창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부안군의 경우 19만2,995원(연간 231만 5,9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원 영통구 7만1,447원(연간 85만 7,362원)보다 2.7배 높았다.

고창군은 18만 4,831원(연간 221만 7,976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월평균 진료비 차이는 65세 이상 의료보장적용인구의 비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역의 의료보장인구 비율은 부안군(28.5%), 고흥군(36.4%), 고창군(30.0%), 의령군(31.6%), 신안군(31.6%) 등이 높았다.

반대로 영통구(5.4%), 계룡시(7.4%), 화성시(7.9%), 수지구(10.7%) 강남구(10.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이번 통계연보는 시도별 의료이용 현황 비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는 지역별 의료이용 주요통계'를 신규 삽입해 적용인구, 보험료 현황 등 6개의 주요 주제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통계연보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우석대 총학 시국선언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우석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우석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는 2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총학은 "헌법에 의해 선출돼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는 대통령 연설문을 민간인이 수정하고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까지 개인 테블릿 PC에 저장됐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유청 활용 모주음료·제과류 개발

〈치즈 부산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관광상품 개발 예정

치즈부산물인 유청이 모주음료와 제과류의 안성맞춤형 소재로 개발돼 관광상품화될 전망이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치즈제조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인 유청을 활용한 유청모주음료와 유청빵과 유청쨈 등 제과류 제조기술을 개발해 특허 및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EIP사업단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주한옥마을모주 협동조합 및 임실농부(주)를 비롯해 일반산업단지 내 (주)일오삼식품 등의 지역기업과 네크워크를 이뤄 진행됐다.

연구원은 전주시와 임실군의 인프라를 접목해 유청을 활용한 유청 모주음료 및 제과류 제품군 관광상품을 개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연구개발은 유청의 2차 가공을 위한 전처리법 및 제품개발에 적용 가능한 소재화 기술개발을 통해 기능성 및 풍미를 더했다.

또한 저온살균(Pasteurization)-Vat살균법(LTLT)을 적용한 최적의 살균법을 통해 유해한 균은 제거하면서 면역성분이나 몸에 좋은 영양성분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살렸다.

여기에 천연소재 추출물을 첨가해 제과류의 유통기간을 연장시켜 식품의 저장·안전성 기술까지 확립, 향후 기술이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유청을 활용한 빵과 쨈을 만들어 천연 컬러소재를 첨가해 맛과 색, 풍미까지 조화를 이뤄 '먹는 즐거움'까지 오롯이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연구원은 유청모주음료 및 제과류(치카롱) 개발 제품을 전주한옥마을 및 임실N치즈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식회에서 소비자 기호도 조사에 높은 호응을 얻었다.

연구원은 앞으로 유청 활용 제품개발 산업화를 통해 폐수처리비 절감 및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6차 관광산업화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어르신 독감·폐렴 예방접종

전주시보건소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전주시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10월 말 현재 87%에 이르고 있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65%로 집계됐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과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50~80%)할 수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된다. 65세 이후에 23가 다당 백신을 처음 접종했다면 재접종은 불필요하며, 65세 이전에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 받았던 사람이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5년 경과 후 재접종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는 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가급적 11월 중에는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권장했다.

한편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고 백남기 씨 발인·영결식' 5일 진행

6일 보성역·금남로 노제 후 광주 망월동 5·18 묘역 안장

고(故) 백남기씨 장례가 오는 5일 진행된다. 장지는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으로 결정됐다.

1일 백남기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의 발인 일시는 오는 5일 오전 8시로 결정됐다.

투쟁본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키로 했다.

장례는 6일 오전 9시와 11시 백씨의 고향인 전남 보성역과 광주 금남로에서 노제를 거친 뒤 광주 망월동에 시신을 안장하는 것으로 끝난다.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0~40명이 참석하는 대표자 회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투쟁본부는 백씨 장례의 명칭을 '생명과 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으로 정했다. 발인에 앞서 4일 오후 9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의 밤도 열린다.

투쟁본부는 "고인의 장례를 국민의 힘으로 치르고자 한다"며 "곧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백 농민의 장례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실현을 위한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을 보내드리는 영결식과 노제에 함께 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발포한 살수를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지난 9월 25일 숨졌다.

경찰은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 받고 공문을 보내거나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 시도를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투쟁본부·시민단과의 대치 끝에 무산됐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9월28일 한차례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자료를 제출한 끝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조건부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6차례 걸쳐 유족 측에 부검을 위한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3차례 방문했으나 유족과 투쟁본부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뉴시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제국(1959. 6. 5.생 2016. 8. 15.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허윤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느단896 상속한정승인
판사 허윤범
▶피상속인: 망 김제국(1959. 6. 5.생
2016. 8. 15.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안터5길 13(서신동)
▶공고인: 김형주
▶한정승인수리일: 2016. 10. 7
▶공고기간: 2016. 11. 3. ~ 2016. 12. 2.
▶연락처: (청구인 김형주의 주소지)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70
105동 2101호
(전북 혁신 우미린 1단지 아파트)